

기고

고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장



보험료 인상하더라도 재정이 튼튼해야 국민에게 이득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병원 문턱이 높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았...

단에서 해당 환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현재는 암이나 다른 여타 중증질환에도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금년에 돌아다친 코로나19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이 여유가 있었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과 확진자들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코로나19 검사·치료비를 공단이 80%를 부담하고,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진료비를 조기 지급하고 있다.

모든 역대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등 반대 의견도 있지만 '19년 보험료를 3.49% 인상하여 1.6조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었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면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社說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거액을 모금한 뒤 대부분 부동산 구입에 쓰거나 건물 신축을 위해 쌓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제기된 후원금 유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각 기관에 후원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5년간 약 88억원을 모금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회의에 참석해 셀프 선출을 하는 등 운영 과정도 엉망이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써서 보낸 응원 편지 등은 포맷지우나 비닐에 넣어 건물 배란다에 아무렇게나 방치했으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허술하게 보관해 훼손을 초래하기도 했다. 간병인이 할머니들에게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모은 후원금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겨우 2억원이었다. 전체 모금액의 2.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은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니라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 지출했다. 반면 무려 26억원은 토지 매입과 생활관 증축,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 등에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도 요양원과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했다. 더구나 이들은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관할 기관의 검사도 받지 않았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legal aid, and support cent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재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물난리로 수재민이 발생하고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수마가 활취고 간 들녘의 곡식이 물에 잠겨 진흙으로 뒤 덮이고 과수원의 과일나무들은 낙과로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는 현장에선 농민들의 한숨소리와 물난리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탄식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곁에 들려온다.

폭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로 인하여 저지대 주택침수와 산사태 및 농경지 침수로 아비규환의 현상이었다. 필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 물난리로 인하여 고향도 물에 잠겨 진흙으로 뒤덮이고 집에 계신 노부모의 안부가 걱정이 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을 시키는 부모님은 자기 자신보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을 보면 우리네 부모님의 자식사랑 마음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스컴에서 일면으로 보도가 영호남의 화합다리인 남도대교와 화계장터 섬진강주변마을 구레등 많은 곳에서 물난리로 주택침수와 가족이 물위를 떠다니는 장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었다.

타깝고 또한 코로나19에 수해까진 어려움이 겹쳐 우리 모두 지원과 수재민에게 조금이라도 이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해마을에는 아직도 많은 불룩도, 널빤지도 쓰레기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끝이 없는 듯 널려있다. 살던 집이 물에 잠겨 있을 때 수재민들의 어두운 얼굴을 보면서 그분들의 지금 심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우리 모두가 수재민의 고통과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복구에 여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조기 복구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기록적인 재해에 대비하자

길고 긴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며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심지어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관의 죽음을 보고 동료로서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민이 힘을 보태 누구 하나 용기를 잃고 쓰러지는 이가 없도록 해야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의해 앞으로 어떤 기록적인 재해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시적으로 반복되는 폭염, 태풍, 산

불, 화재 등에 최악을 생각하고 대비해야겠다. 사회적 재난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만이 진정한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 말란 것은 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은 지켜야지 국가안전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개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전부주의는 그 누구의 생명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의 주체는 시민 개개인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그마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문화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